



5일 일본 도쿄 요요기 국립경기장에서 열린 2020 도쿄 패럴림픽 배드민턴 남자 복식(WH2) 김정준-이동섭 조와 중국 마이젠펑-취쑤오의 경기에서 김정준(오른쪽)과 이동섭이 셔틀콕을 넘기고 있다. 이날 김정준-이동섭은 0-2로 패하며 은메달을 차지했다.

한국 막판 뒷심... 아쉬운 41위

2020 도쿄 패럴림픽 마무리... 전체 목표 순위 달성 실패 금4·은10·동12... 고령화 선수단 세대교체 필요성 절감

한국 장애인 대표팀이 2020 도쿄 패럴림픽에서 막판 뒷심을 발휘했지만, 전체 목표 달성에는 실패했다. > 종합순위 41위로 마무리... 목표 달성은 못해

한국 선수단의 도쿄 패럴림픽 목표는 금메달 4개, 은메달 9개, 동메달 21개로 종합순위 20위였다.

하지만 대회 폐막일인 5일 한국은 금메달 2개, 은메달 10개, 동메달 12개로 41위에 자리했다.

4일 보치아 대표팀이 패럴림픽 9회 연속 금메달을 획득하고 마지막 날 배드민턴의 김정준(43·울산중구구)이 단식과 복식에서 각각 은메달 두 개로 힘을 보였으나 기대하던 성적표는 받아들일 못했다

1968년 처음 출전한 텔아비브(이스라엘)대회 이후 53년 만에 가장 낮은 순위다. 역대 최고 성적은 1988 서울 대회(금메달 4개·은메달 35개·동메달 19개)의 종합 7위다.

한국은 가장 많은 메달이 걸린 기초 종목 수영, 육상에서 단 한 개의 메달도 따지 못했다.

리우 3관왕'인 수영 조기성(26·부산시장애인체육회)이 무관에 그쳤고, 육상의 전민재(44·전북장애인체육회)도 세월의 흐름을 막을 수 없었다.

양궁 대표팀은 텔아비브 대회 이후 53년 만에 노메달을 기록했다.

그래도 총 메달 개수로 매진 순위가 15위(24개)인 점은 위안거리다.

또 탁구는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1개, 은메달 6개, 동메달 6개를 따내며 '호자 종목' 노릇을 톡톡히 했다.

주영대(48·경남장애인체육회)는 남자 개인 단식(스포츠등급 TT1)에서 첫 금메달로 선수단의 대회 첫 금메달을 따냈다. 김현욱(26·울산장애인체육회)과 남기원(55·광주시청)이 같은 종목에서 각각 은·동메달을 목에 걸며 태극기 세 개를 휘날렸다.

> '평균연령 40대' 고령화된 선수단... 세대교체 필요성 절감

이번 대회에 출전한 한국 선수 85명의 평균 나이는 40.5세. 도쿄 패럴림픽에 선수를 15명 넘게 보낸 국가 중 평균 연령이 가장 많다. 개최국 일본은 평균 33.2세, 중국은 29.7세다.

이현욱 대한민국 선수단 총감독은 "고령화와 세대교체는 매년 패럴림픽에서 많이 받는 질문이다. 리우 대회 이후 많은 예산을 투입했지만, 하향평준화가 되지 않았다 생각한다"며 "엘리트 선수에 대한 집중과 가능성 있는 선수는 차별화는 특별훈련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부진의 원인을 단순히 '나이'와 '젊은 선수층'으로만 설명할 수는 없다. 전문성 있는 인력 보강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일부 종목에서는 선수단이 경기 일정과 규정을 몰라 손해를 보거나, 불 편한 등 허술한 운영도 여러 차례 나왔다.

> '젊은 피' 들 반짝... 윤지유·김민수·주정훈 등 가능성 확인

이번 패럴림픽에서 한국 장애인 체육의 '미래'를 이룰 일부 차세대 주자들을 발굴한 건 수확이다.

올림픽에서도 신유빈(17·탁구), 여서정(19·체조), 안산(20), 김제덕(19·이상 양궁), 황선우(18·수영) 등 'MZ 세대'가 주목받았으며 패럴림픽에도 '젊은 피'들이 나왔다.

2000년생 장애인 탁구 여자 국가대표 윤지유(21·성남시청)는 리우 대회 여자단체전(TT1-3) 동메달을 획득한 경험자다. 5년 전에 이어 올해도 한국 선수단의 막내로 출전한 그는 도쿄에서 단체전 은메달 1개, 개인전 동메달 1개를 목에 걸었다.

양궁 대표팀의 1999년생 '기대주' 김민수(22·대구도시철도)는 두 번째 출전한 이번 대회도 노메달로 마쳤지만 기량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 그가 양궁 세대교체의 선두주자라는 사실을 의심하는 이는 없다.

휠체어테니스의 임호원(23·스포츠도토)도 올해까지 두 번의 패럴림픽을 메달 없이 마쳤지만 남자 단식 1회전에서 맹세를 펼치며 경항을 쌓았다.

주정훈(27·SK에코플랜트)은 태권도의 첫 패럴림픽 정식종목 채택에도 불구하고 중주국의 유일한 선수로 출전, 남자 75kg급(스포츠등급 K44)에서 값진 동메달을 따냈다.

"캡틴 손흥민 해결사 본능 살려야"

7일 레바논과 최종예선 2차전 팀플레이 집중... '22경기 4골'

태극마크를 달면 소속팀에서 보여주던 날카로운 해결사 본능 대신 동료를 돕는 도우미 역할에 더 중시해지는 벤투호의 '캡틴' 손흥민(29·토트넘)에게 레바논전을 앞두고 '과감한 골잡이'의 모습을 바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7일 오후 8시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레바논과 20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2차전 홈 경기를 치른다.

벤투호는 지난 2일 치러진 이라크와 최종예선 1차전 경기에서는 68%의 볼 점유율에 15개의 슈팅(유효슈

팅 5개 포함)을 시도했지만, 무득점에 그치며 0-0으로 비기는 결과를 떠안으며 10회 연속 월드컵 진출을 향한 첫걸음을 무겁게 내디뎠다.

손흥민은 이라크전에서 왼쪽 날개로 선발 출전해 풀타임을 뛰는 동안 전반 23분단 한 차례 슈팅에 그쳤다. 볼을 이어받으면 동료에게 슈팅 기회를 내주는 도우미 역할과 더불어 코너킥 세트 피스 키커 역할에 더욱 충실했던 결과다.

손흥민은 벤투호 출범 이후 22경기 A매치에 나서 4골을 터뜨렸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무대에서 인정받는 '월드클래스' 공격수의 모습과는 사뭇 낯선 기록이다.

세밀한 조직력으로 상대의 좁은 공간에서 기회를 만들어야 하는 터라 손

흥민은 개인적인 욕심보다는 팀플레이에 더 집중할 때가 많다.

손흥민은 이라크전에서 해결사보다 도우미 역할에 집중하는 모양새였지만 6차례 크로스 가운데 1개만 성공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기록적으로만 따지면 아쉬움만 가득한 결과였다.

결과 손흥민이 도우미의 짐을 덜어내고 해결사 본능을 더 살려야 7일 레바논전도 답답한 경기가 예상된다. 벤투호는 지난 6월 월드컵 2차예선 최종전에서 레바논을 만나 2-1 역전승을 거뒀지만 선제골을 내주며 '침대 축구'에 애를 먹었다.

이번 레바논과 2차전도 선제골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만큼 '해결사' 손흥민의 활약에 팬들의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PGA투어 챔피언십 최종전에 참가한 임성재가 샷을 하고 있다.

'화력의 승리' 선두 kt 시즌 60승 선착 눈앞

3경기 연속 11득점... 1승 남겨

프로야구 선두 kt wiz가 시즌 60승 선착에 1승을 남겼다.

kt는 5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LG 트윈스와 치른 2021 신한은행 SOL KBO리그 방문 경기에서 11-0으로 완승했다.

11-1(3일 키움 히어로즈), 11-1(4일 LG)에 이어 kt는 3경기 연속 11득점의 대서문 공격을 뽐내며 3연승을 질주하고 시즌 59승 1루 38패를 거뒀다.

지난해까지 시즌 60승 선전 팀의 정규리그 우승 확률은 73.3%(30년 중 22번)이다. LG는 3연패를 당했다.

kt는 3회에만 8점을 뽑아 일찌감치 승패를 갈랐다.

kt는 8-0으로 앞선 4회초에도 2사 1, 3루에서 타진 호일의 우월 2루타와 허도환의 좌전 안타를 묶어 3점을 보태 LG의 백기를 타아냈다.

kt는 4경기 3번 타자 강백호의 득점으로 올 시즌 리그 5번째이자 역대 프로야구통산 199번째 선발 타자 전원 득점 기록을 땀으로 얻었다.

타선용 등에 얽은 kt 선발 배재성(5이닝 동안 2안타만 내주는 빼어난 투구로 8승(5패) 경기를 쉽게 따낸 데 반해 등 근육 통증으로 이탈한 앤드루 수아레즈를 대신해 선발로 나선 LG 김윤식은 대량 실점으로 패전 투수가 됐다.

임성재 시즌 개인 최다 버디 신기록 '-1'

PGA투어 역대 버디 기록 주목

임성재(23)가 미국프로골프(PGA)투어 2020-2021시즌 플레이오프 최종전인 투어 챔피언십 마지막 날 '최다 버디' 신기록을 세우며 주목된다.

임성재는 5일(한국시간)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시드 레이크 골프클럽(파70·7346야드)에서 열린 투어 챔피언십 3라운드에서 시즌 492·493번째 버디를 잡았다.

임성재는 이날 보기도 2개 기록하며 타수를 줄이지 못하고 중간합계 2언더파로 공동 22위를 달리고 있다.

단독 선두 패트릭 캔틀레이(미국·20언더파)와는 18타 차이로 우승에

최대 한 시즌 버디 신기록을 눈앞에 뒀다. 올 시즌 총 493개의 버디를 기록 중이다.

PGA 투어는 "투어 챔피언십 3라운드 11번홀 버디는 임성재의 시즌 493번째 버디다. 임성재가 버디 1개를 더 잡으면 1980년 이후 PGA 투어에서 한 선수가 한 시즌에 기록한 최대 버디 기록을 세운다"고 밝혔다.

플레이어와 타이틀을 이룬 임성재는 투어 챔피언십 최종 라운드에서 버디를 1개라도 더 추가하면 이 부문 신기록을 세운다.

임성재는 2020-2021시즌 최다 버디 타이틀은 확보했다.

임성재는 2019년(480개)과 2020년(390개)을 이어 3년 연속 버디 1위를 차지했다.

KBS1	KBS2	MBC	JIBS/SBS	EBS1
6: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광장 7:35 KBS 뉴스광장 제주 7:50 인강극장 8:25 아침마당 9: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9:45 KBS 뉴스 제주 10: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1:00 시니어 토크쇼 황금연못(재)	6:00 생활의 발견 스페셜 6:1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7:00 토크쇼 대한민국 라이브 1부 8:00 토크쇼 대한민국 라이브 2부 9:00 KBS 아침 뉴스타임 9:20 속이도 궁금(재) 10:00 인강극장 스페셜 10:40 지구촌 뉴스 11:00 경찰수업(재)	6:00 MBC 뉴스투데이 1부 6:25 MBC 뉴스투데이 2부 7:50 TV매거진 해피플러스 8:50 두 번째 남편(재) 9:30 930 MBC 뉴스 9:45 기본 좋은 날 10:45 자정까지 30주년 특집 국민이 만드는 나라	6:00 모닝와이드 1부 6:25 모닝와이드 2부 7:20 JIBS 뉴스 7:35 모닝와이드 3부 8:35 아모르파티 9:10 좋은 아침 10:10 SBS 뉴스 10:30 삼남은 오늘 11:00 꾸러기 탐구생활 11: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7:45 고고 다이노 공룡탐험대 8:00 땀방울 유치원 9:15 세계의 비밀 수호대 반개맨 9:40 우리집 유치원 11:20 세계테마기행 12:10 이주 각별한 기행 15:25 클래식 e 16:30 땀방울 유치원 17:00 EBS 뉴스 17:20 꽃 피리는 어린 양 손 18:00 생방송 밤과 후 들쭉 19:50 다류영화 길 위의 인생
12: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12 13:00 네트워킹 공명기획 문화스캐저 13:50 세계는 지금 스페셜 14: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2 14:30 제주드라마 가족(재) 16:00 사사간건 17: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17:30 탐나는 제주	12:15 경찰수업(재) 13:30 테라링 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13:50 연중 라이브(재) 15:00 KBS 뉴스타임 15:10 브레이크 이발소(재) 15:30 TV 유치원 16:00 세상의 모든 다큐(재) 16:50 조선팝 트랩 더 비트(재) 17:50 통합뉴스룸 단	12:00 12 MBC 뉴스 12:20 반짝이는 프리체널2 12:50 뽀빠뽀 놀이중아 13:20 헬로키즈 신비한 자연교실 3 13:50 2시 뉴스 외전 15:20 이 맛에 산다(재) 15:55 기본 좋은 날(재) 16:55 5 MBC 뉴스 17:10 안싸우면 다행이야 스페셜	12:00 SBS 12뉴스 12:20 JIBS 뉴스 12:40 흥남(재) 14:00 뉴스인사이드 16:00 최강 1교시(재) 17:00 SBS 오뉴스 17:35 JIBS 뉴스 17:50 내로세모	제주 CBS FM 93.3MHz 90.9MHz 7:00 김기영의 아침뉴스 7:20 김현정의 뉴스쇼 12:00 CBS통합뉴스 12:05 천영의 있는 숲길 13:30 생명의 열매 15:00 CBS 뉴스 17:05 시사매거진 제주 18:00 CBS 저녁종합뉴스 18:25 한민승부 21:35 라디오강단 22:05 백영희의 가스펠 아워
18:00 6시 내고향 19:00 KBS 뉴스 7 제주 19:40 우리말 겨루기 20:30 속이도 궁금 21: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9 21:35 KBS 뉴스 9 제주 22:00 가요무대 23:00 더 라이브 23: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타임	18:30 2TV 생생정보 19:50 빨강 구두 20:30 백중원 클리프 21:30 경찰수업 22:40 가는 출몰하다	18:05 생방송 오늘 저녁 19:05 두 번째 남편 19:40 MBC 뉴스데스크 21:00 안싸우면 다행이야 22:30 선을 넘는 녀석들 미스터X 스페셜	18:50 생방송 투데이 19:50 SBS 8 뉴스 20:30 JIBS 8 뉴스 21:00 생활의 달인 22:00 흥친기 23:10 동상이몽2 너는 내운명	KCTV 7:00 KCTV 뉴스 7:30 배워볼수록 권광중국어 8:00 취미로 먹고 산다 9:00 KCTV 뉴스 10:00 제주특별자치도의회 13:10 KCTV 다문화스페셜 14:30 KCTV 스페셜 15:20 마음의 고향 시골정터 17:00 KCTV 뉴스 18:00 취미로 먹고 산다 21:00 KCTV 종합뉴스

이 프로그램은 방송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TBN 제주교통방송 제주시 FM 105.5MHz 서귀포시 FM 105.9MHz

오늘의 운세 6일

36년 노력의 대가가 현실로 나타나니 인내하라. 준비된 자는 웃는다. **48년** 부하직원에게 존경을 받거나 동료의 인정을 한다. **60년** 자녀와의 대화와 필요하고 답답함을 해소하라. **72년** 생각이 복잡하고 결정은 어렵다. 상의하거나 교육현장에서 정보를 활용. **84년** 등산이나 여행 또는 낚시를 즐기기도 한다.

37년 외출 또는 가정에 내가 해야 할 일이 많아진다. **49년** 한약재로·건강·수산업 종사자는 손님 방문이 따르니 경리 정돈을 하라. **61년** 시비나 구설이 오거나 주변 일에 참견은 자제하고 가지말 것. **73년** 새롭게 미래 설계. 계획이 필요한 시기다. **85년** 내가 방문자라기 아첨담도록 킷마루리를 잘 해야 한다.

38년 대인관계가 좋으면 명예가 따른다. **50년** 마음의 문을 열고 원만한 인간관계 형성을 유지하라. **62년** 마음, 어깨가 무거워도 주어진 일에 전념하는 것이 상책이다. **74년** 협조자나 동업자가 생기면 상의하여 공존공생하는 것이 유리하다. **86년** 구설이 따르니 말을 신중하게 해야 한다.

39년 일이 호전되고 자녀와 관계된 일로 소식이 오거나 경사가 있다. **51년** 애매한 행동이 구설이 되니 용기있는 결단이 필요하다. **63년** 외에도 모양을 내거나 급전 지출이 따른다. **75년** 재정적 지출로 갈등한다. 다툼은 화를 자초하며 내게 불리. **87년** 기회가 자주오지 않듯이 결단이 오늘을 필요하다.

40년 오는 말은 고운데 가는 말이 곱지 않다. **52년** 중상모략 또는 배신이 오니 신중함이 필요하다. **64년** 작은 아득이 있고 좋은 소식도 들려온다. **76년** 유통업·미용·피부·뷰티업종 이익이 증가 또는 매매 등으로 이익이 생기기도. **88년** 평생직장보다는 평생직업의 개념으로 자격증 취득 및 기술 습득.

41년 사업 수 수익이 있고 몸이 바빠진다. **53년** 가을에 단비가 내리듯 일이 막힌 사람은 일이 호전된다. **65년** 부부간에 불화 갈등이 있고 자식이나 부하직원에게 의한 문제 발생. **77년** 직장 또는 예정에서 회소식이 오거나 맛을 낸다. **89년** 기나긴 시간이 나에게 소중하니 초심을 잃지말 것.

42년 학원이나 자연이 필요하고 단합하게 된다. **54년** 기획 또는 통계분야는 일이 분주하고 이익이 따른다. **66년** 길들이 다가오니 오늘은 부지런하게 움직여라. **78년** 주변에서 도와주려는 사람이 있거나 도움을 받는다. **90년** 친구나 동료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내면의 즐거움이 있다.

43년 마음 조절이 때론 필요하다. 급한 성격은 불리. **55년** 동업 또는 창업에 다른 생각할 여념이 없다. 시장조사를 철저하게 하라. **67년** 변화와 감정을 원하고 있다. 개인사업은 원만하고 계약이 증가. **79년** 신변에 위험이 따를 수 있다. 조끼 귀, 과음을 피하라. **91년** 많은 사람들과 친목, 단합을 하게 된다.

44년 주변과 융화, 단합을 하게 되며 즐거움이 따른다. **56년** 농·수산업은 새벽부터 바쁜 일과 계약일이 있다. **68년** 하고자 하는 일에 결과가 있으니 최선을 다하라. **80년** 너그르움이 상대를 편안하고 하고 유머가 필요하다. **92년** 불만이 때론 다가와도 겉으로 드러내지 말 것.

45년 하던 일에 변화가 오거나 변동을 주고 싶어 한다. **57년** 약속 만만치 않게 지켜주지 않겠다. **69년** 교육, 펀드, 설계사에게는 몸이 분주, 활동 증가. **71년** 이미지관리업에 인기가 있을 수 있음 증가. **83년** 기본 능력에 참여하면 지갑을 잘 챙길 것. **95년** 감정적 기본으로 대하면 애뜻상과 불화하니 마음을 넓게.